한일 여성, '불교'로 20년 교류하다

한일불교교류협 여성부, 11월 12~14일 삼광사 등 방문

양국 불자여성 대표한 화합의 장
한국불교문화 탐방 및 체험 진행
백명숙 여성부 회장 감사패 받아
양국 우정과 소통 이어가길 기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16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를 개최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회장 백명숙)가 양국 여성 불자들을 대표해 화합과 상생을 상징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16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이하 교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대회는 양국 불자 여성들의 우호를 증진하고 각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화합의 장으로 열렸다.

환영 만찬으로 시작을 알린 교류대회는 은해사 및 정토마을 자재병원을 방문해 한국 불교 문화를 탐방했다. 마지막 날에는 천태종 삼광사를 방문해 참배하고 직접 한국 전통음식을 만들며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광사를 방문한 회원들은 오이소박이와 알타리무 김치를 직접 만들며 처음 만들어본 한국 음식에 새로운 문화 체험이라며 반색했다.

타카노 후세키 회장은 "잘하지는 못해도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스즈키 리에코 부회장은 "너무 재미있다. 김치를 사서 먹은 적은 있지만 오늘 만들어본 음식은 처음 해본 색다른 경험"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교류대회 시작에 앞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는 환영 만찬을 열고 일본에서 온 협의회 회원들을 환영했다.

환영 만찬에는 이사장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명안 스님(여래종 총무원장), 사무처장 탄웅 스님, 상임이사 고봉 스님, 지만 스님, 진관 스님, 이사 호명 스님을 비롯해 일한불교교류협의회 회원 와타나베 겐코 스님 등 승가 내빈이 동참했다. 백명숙 여성부 회장, 박동희 부회장을 비롯해 타카노 후세키 회장 등 여성부 회원들도 참석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이날 창단부터 헌신적인 노력으로 여성부를 이끌어 온 백명숙 회장과 박동희 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백명숙 회장은 "앞으로 우리 우정이 20년이 아닌 40년을 더 이어가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타카노 후세키 회장은 "일본의 사찰은 도심에 있어 산사의 정취를 느낄 수가 없는데, 한국의 사찰은 가을의 향기가 물씬 전해져 계속 머물고 싶다"며 "함께 해준 우정에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사장 상진 스님은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가 내년에 20주년을 맞는다. 불교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아온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양국이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향기로운문화동행, 차향 속 평화 전하다

〈茶〉

제11회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

11월 17일, 부산 정관 중앙공원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 11월 17일 부산 기장군 정관 중앙공원 일원에서 제11회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 스님)이 11월 17일 부산 기장군 정관 중앙공원 일원에서 제11회 부산기장국제차(茶)문화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 (사)향기로운문화동행 이사장 보혜 스님, 범어사 효문 스님을 비롯해 정종복 기장군수 및 국내외 다회 대표 차인들이 참여했다.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는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는 지난 10년간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며 든든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 축제가 더 단단한 나무로 성장해 울창한 숲을 이루며 더 큰 그늘을 드리우기를 기대한다"며 치사를 전했다.

보혜 스님은 "10회의 축제를 거쳐오면서 많은 인연의 도움이 있었고 그분들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진심에 담아 차 한잔 올리고 싶은 날"이라며 "세월에 익은 차가 깊은 맛이 나듯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네 삶도 향기롭게 짙어가면 좋겠다"며 대회사를 전했다.

인도 아유타국에서 차를 전래한 것으로 알려진 허황옥을 기리는 허황후헌다례에서 헌향, 헌화, 헌다에 이어 헌무가 있었다. 인도무용가 스레스타 맨덜(Shrestha Mandal)이 담당한 헌무에 많은 관객들은 어린 연출가의 공연에 즐거워하며 큰 박수를 보냈다.

이어진 문화상 시상식에는 허황옥 차인대상에 전정현 (사)한국차인연합회 부회장이, 김수로문화대상에 이상균 차와문화 편집장이, 차성문학대상에 김문홍 부산공연사연구소장이 수상했다.

허황옥차인대상을 수상한 전정현 (사)한국차인연합회 부회장은 "2019년 김해에서 '허황후 궁중다례'를 2천여년 만에 수로왕릉에서 재현하고 가야의 숨결과 차문화를 뿌리내리고자 한 노력들이 이 상을 수상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부산시장 표창은 배귀점 (사)한국다도협회 이사와 김진옥 (사)향기로운문화동행 이사가 수상하고 부산시교육감 감사장은 박진옥 한국다도협회 효명지부장)과 허두이 우리문화맥협동조합 이사장이 수상했다. 부산시의회의장 감사장은 김영희 신라차문화원 부회장과 김나경 (사)한국다도협회 경남동부지부장이 각각 수상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부산정각원, 나눔의 연말 온기 전해

11월 22일, 사상 르네시떼 광장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이사장 향공 스님)이 연말을 맞아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창립 2주년을 기념했다.

(사)부산정각원은 11월 20일 부산 사상구 르네시떼 광장에서 '창립 2주년 및 제13회 연말 사랑의 나눔잔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부산정각원은 김장김치와 장학금, 라면, 육개장 중식 등 풍성한 나눔으로 지역민에게 자비를 전했다. 김장김치는 300박스(1박스 10kg), 라면 300박스 등이며, 경품 추첨을 통해 TV,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이불 등 다양한 선물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주지 향공 스님을 비롯해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 전 사상구불교연합회 회장 성문 스님, 조병길 사상구청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향공 스님은 "부산정각원은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자비와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 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동국대 WISE, 위탁교육 업무협약

11월 20일, 경내 주지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11월 20일 경내 주지실에서 '범어사·동국대 WISE 위탁교육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앞으로 양 기관은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인재양성을 위해 서로 협력할 계획이다.

동국대 대학원(불교문화대학원, 사회과학대학원, 경영대학원)은 범어사에서 추천한 종사자(산하 법인 기관 포함)들의 교육 역량 강화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동국대 대학원은 범어사에서 추천한 학생에 한하여 첫 학기 입학에서 60%, 다음 학기부터 50%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범어사 종무소로 연락해 대학원 진학 의사를 밝힌 후, 범어사의 추천을 받아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라오스에 한국어학과 강의동 기증

11월 18일, 교육 불사 실천



(사)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 스님)은 11월 18일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위치한 수파누봉대에서 '한국어학과 강의동 신축 건물 기증식'을 진행했다.〈사진〉

(사)한나래문화재단은 불교국가인 라오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인재양성에 앞장서고자 한국어학과 전용 강의실 건립 불사를 추진했다.

기증식에서는 수파누봉대 한국어학과 재학생들의 라오스 전통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제3회 한국어! 도전 골든벨'이 진행됐다. 기증식에는 이사장 심산 스님을 비롯해 루앙프라방 교육청장, 수파누봉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 홍법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 모금회 사랑의 열매, 은산해운항공, 삼영엠티, 이스턴마린 주식회사가 후원했으며, 홍법사 법화경 전편 독송회, 삼보회, 108산사순례회가 불사 기금 모연과 불사 원만 성취를 위해 기도 중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